

碩士學位論文

北韓體制的變化와 南北韓 關係에
대한 研究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全 炳 魯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鄭 成 澤

北韓體制的 變化와 南北韓 關係에
대한 研究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 System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 政 學 科

一般行政專攻

全 炳 魯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鄭成澤

北韓體制的變化와 南北韓 關係에
대한 研究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 System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全 炳 魯

全炳魯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準함

1992年 12 月 日

審查委員長 李鍾受



審查委員 鄭成澤



審查委員 黃振洙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	1
第 2 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3
第 2 章 北韓體制의 形成과 變化過程	4
第 1 節 北韓 體制의 形成	4
第 2 節 北韓體制變化의 外部的 要因	7
1. 中國의 對北韓 政策	7
2. 러시아의 對北韓 政策	9
3. 東西 兩極體制의 崩壞	11
4. 社會主義 國家의 體制變化	13
第 3 節 北韓體制의 變化過程	15
1. 金日成 體制의 確立 段階	15
2. 金日成 主體思想의 統治理念과 段階	17
3. 開放體制로의 準備 段階	18
第 3 章 北韓體制의 特性과 問題點	21
第 1 節 北韓體制의 特性	21
1. 北韓官僚體制의 編成과 權力集中	21
2. 朝鮮勞動黨 一黨體制	24
3. 金日成 主體思想의 信奉	27
4. 權力體制 世襲의 構築	29

第 2 節 北韓體制的 問題點	31
1. 共產黨 一黨體制的 硬直性	31
2. 過渡한 軍事力 強化로 經濟的 破綻	33
3. 開放體制로의 轉換에 대한 抵抗	36
第 4 章 北韓體制的 變化와 南北韓 關係의 展望	40
第 1 節 北韓體制的 變化의 展望	40
第 2 節 南北韓 關係의 展望	42
1. 社會·政治的 展望	42
2. 經濟交流에 대한 展望	45
3. 軍事的 關係에 대한 展望	48
第 3 節 南北統一에 대한 展望	50
1. 南北韓 關係改善의 前提條件	50
2. 南北統一에 대한 展望	51
第 5 章 結 論	56
參 考 文 獻	61
A b s t r a c t	67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한반도는 강대국들에 의한 국토분단으로 인해 극심한 대결양상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비방과 불신을 조장시켜 왔고, 해방후 지금까지 47년간 전혀 다른 체제와 환경에서 경쟁을 가속화 해온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측면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이질감만 팽배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반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한은 고위급 회담, 적십자 회담, 국회 회담, 체육 회담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에 힘입어 1940년대 후반에 김일성 정권을 탄생시켰고, 1950년 6.25사변후에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강력한 공산당 정권을 출현시켰으며, 김일성 주체사상이 근본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또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데 이용되었으며, 나아가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구축하게하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렇게 북한정권이 김일성의 강력한 공산독재체제로 단일화 된 반면에, 남한정권은 지금까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져 왔으며 1992년 12월 현재 완전한 문민정부 수립 을위한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남북한의 이러한 이질적인 통치체제는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민주체제와 독재체제로, 경제의 급속적 발전과 경제적 파탄으로, 사회개방화와 극심한 사회통제로 이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게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 정권은 주체사상에 의한 공산독재체제와 중앙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의 실패, 사회통제에 대한 주민의 반항,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폭동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대외개방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더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선진 자본주의 기술도입에 의한 점진적인 경제발전,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 출현으로 인한 탈이데올로기 사상과 소련연방의 붕괴, 또한 동서화합의 기운과 탈공산주의 사상의 팽배로 인한 동유럽의 자유 민주주의화, 동서독의 자유민주체제로의 독일통일 등 세계적인 대변혁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대외개방이 절실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개방정책을 망서리고 있다. 이는 급속한 개방정책으로 인한 김일성 정권의 붕괴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경직화 되어 있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남한을 앞지르는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1970년대부터 GNP의 20~30%의 과도한 국방비 투자와 통제경제의 강화 및 대외개방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경제사상이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바, 북한정권은 남한의 경제력의 도움과 기술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남북한의 각종 교류와 개방정책은 남북통일의 지름길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점진적인 교류와 민족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바탕하에서 북한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해 보고, 또한 북한의 현상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추출함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논문의 연구목적도 북한의 체제변화에 따른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망에 두고자 한다.

第2節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북한은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적 파탄에 직면해 있고, 북한정권은 대외개방의 압력으로 인해 상당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분석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명확한 현실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종의 문헌자료와 북한체제연구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른 판단을 원용하여 분석하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논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료수집에 한계성과 제약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성격상 문헌적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논문과 국내외의 공산권 자료와 북한권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기타 전문서적 및 신문기사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논문의 연구범위는 북한체제의 변화과정과 이러한 체제변화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남북한 관계를 전망해 보는 데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범위설정에서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요인 및 변화과정을 기술하였고, 제3장에서는 북한체제의 특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추출했으며, 제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기술하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 관계를 나름대로 전망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第 2 章 北韓 體制的 形成과 變化過程

第 1 節 北韓 體制的 形成

한반도 분단에 있어서의 외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으므로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책임질 정부가 존재치 않았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 독립에 대해 외세가 관여하게 된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국 수뇌들에 의해 일본 패망 후의 식민지처리문제로 한반도가 거론되면서 부터이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1월의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보장되는 선언이 있었으며, 1945년 7월의 포츠담선언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는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1945년8월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선언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1945년 9월2일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발표에 의해 한반도의 남쪽은 미군이 진주했고, 북쪽은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소군의 한반도 진주는 한반도가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남북분단에 의해 남한은 미국군정이 실시되었고, 이어 1948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 섰으며, 북한에는 소련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김일성 정권이 들어 서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반도 분단의 특성은 찬탁과 반탁등으로 격돌하는 내부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었지만, 한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38선도선이 확정되었고, 미국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남·북한 정부를 수립하는데 기여한, 외부세력에 의한 분단고착이었다.¹⁾

註 1) 정성택, “북방정책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관한 연구”한성대학교 북방문제 연구소, 1992, p. 114

북한의 김일성에 의한 일인지배체제는 상술한 바와 같은 강대국들의 한반도 분단정책에 의해 태동되었으며, 1945년8월부터 1956년4월까지 조선 노동당 일당체제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이시기는 공산집단의 기초적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 자체의 단결과 조직형성 및 조직정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공산당 조직정비를 위해 1945년10월 14일에 이북5도 공산당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여 반인민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에 총력을 경주하였고, 김일성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반대파를 숙청하고 독재권력 구축을 시도했으며, 1945년 12월 17일에는 조선 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김일성이 당책임비서직에 취임하여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김일성의 당책임비서직 위임을 계기로 북한에는 중앙집권적인 강력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²⁾

북한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1948년 9월 8일에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채택하여, 다음날인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언하였으니 그것은 동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며칠 후의 일이었다. 이로써 같은 민족이 국토를 남북으로 분단 점유하여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한민족의 현대사가 시작된 것이다.³⁾ 즉 한반도의 한쪽은 자본주의적 길로 다른 한쪽은 사회주의적 길로 분화·성장하는 과도기 및 분기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해방후의 과도기적 분기점에 있어서 당시 경제적 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정책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등장하였다.

해방후 3년간은 한반도를 재편성하려는 제 세력들이 각축을 하면서 새사

2) 박완신, 「북한 행정론」 희성출판사, 1988, p. 66

3) 최송화, “북한의 헌법과 통치구조”, 「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1, p. 27

회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함과 동시에 두 사회의 원형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모든 모순이 중첩·융집된 공간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회의 주로 물적 기반이었던 토지의 향배는 새 정권의 성격과 새 체제의 형성에 결정적인 중요성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에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로부터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로 전화하는데 있어서 토지개혁은 사회개혁의 중심내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토지개혁은 처음에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인들에게 토지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무상분배의 원칙이었으나, 그 후 전면적인 토지 국유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공산당 및 인민위원회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화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됨으로서 김일성 일당 체제가 확립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이러한 지주계급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정책과 남로당을 비롯한 반대파 숙청을 통해 정치권력을 확고히 했고, 1958년 3월의 제1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헌법과 당규약을 재 정비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정권의 견고한 틀을 마련하였으며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권력을 다지기 위해 당과 정부 주요 직책에 김일성의 동료들인 빨치산 세대를 대거 등용하였다.⁵⁾

4) 이대근,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 53

5) 정규섭, “북한 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p. 84-90

第2節 北韓體制變化의 外部的 要因

1. 중국의 대북한 정책

1949년 김일성에 의한 연안파의 숙청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었고,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기 이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1949년 3월 18일에 체결된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중국은 만주에 있는 일본의 군수품을 북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고작 이었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원만해지기 시작 한 것은 1970년대 소련이 원유가격을 북한에 대해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내렸을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해 싼값으로 원유를 공급 하면서 부터이다. 즉, 중·소 파이프라인을 1976년 1월에 가동하여 대정 원유를 직접 북한전역에 운송하면서 부터 중국과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밀착 관계를 형성 하게 되었다. 이것이 가깝게 한 요인이며 또한 1975년 4월 18일 김일성이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중국을 직접 방문하게 됨으로써 양국은 우호 관계나 친선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최근 1980년대에서는 이종욱이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와 미군 철수등을 주장하고 1980년 12월에는 중국의 조자양이 평양 방문으로 더욱더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⁶⁾. 중국은 10억을 상회하는 세계최대의 인구 보유국이다. 10억의 인구를 통치하는 국가의 체제는 장기간 통치하는 모택동 체제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덩소평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모택동이 사망하자 기존의 권력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파와 개방외교와 경제 개발등의 혁신적인 정책을 내세운 개혁파간에 갈등과 권력투쟁이 발생하였으나 혁신정책을 표방한 개

6) 정진위, "북한의 대 중공관계", 「북한의 대외정책」, 경남 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p. 182

효과가 덩소핑의 전적인 지원으로 인해 권력투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⁷⁾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 경제상향도 중국의 큰 사건인 천안문 사태 이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개혁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금년 1992년 1월 덩소핑이 광둥성일대의 경제특구를 방문하여 개방개혁정책을 심화, 확대할 것을 역설한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실용주의를 채택한 이후로 경제개발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개방정책을 심화, 확대할 것을 역설한 이후 중국은 자본주의 도입을 가속화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에 경제개방정책을 비롯한 중국식 체제를 개방하여 어떠한 모험주의를 회피함으로써 평화적으로 함께 중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한반도의 팔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지위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과의 관계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왔다. 그러므로 중국과 가까워진 한국은 1992년 한·중간 교역액이 38억달러에 달하나, 1991년에는 5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중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는 한·중간 정치관계를 발전시키는 측면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991년 1월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참석자 한국을 방문한 전기침 중국외교부장관은 노태우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고, 무역대표부에 영사관의 기능을 확대해 줄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1992년 4월 아·태 경제 협력각료회의 참석자 중국을 방문하였던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이붕 총리와 전기침 외교부장 등 중국의 고위·지도자들과 접촉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이해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7) 이근수, "4개 현대화 노선과 덩소핑체제," 「국방논총」제16호, 1991. 겨울, p.128

북한은 중국을 가장 적합한 경제대상국이라고 여겨 졌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 기술과 자본이 중국의 노동력에 결합될 경우 양국은 커다란 경제발전이 이룩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중수교는 북한과 미·일관계 정상화와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다. 한·중수교와 병행하여 남북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걸음 더 남·북대화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중국과 수교 교류를 했지만 더욱 더 가까워진 것은 1992년 올림픽 때 매우 친밀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에는 한·중 무역대표부가 개설되게 이르렀다.⁸⁾ 한편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갈수록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필요성 때문에 더 깊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

김일성 정권의 탄생은 거의 소련의 지원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은 관계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두 나라 관계는 한국전쟁의 공동수행으로 사회주의적 혁명을 수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의 혁명전쟁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소련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는 소련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경제교역국으로서 친밀해진 반면 북한과는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물론 양자 간에는 소련의 국익 중시 경향과 북한의 이념. 중시 경향이 러시아의 개혁·개방정책은 북한에 이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북 고위당국자 회의의 개최라는

8) 신상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통일 문제 연구」 제4권2호1992. 여름, pp. 195-196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련의 압력에 의하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⁹⁾한편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지 4년여가 흘렀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디노스트 정책은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가 정치·외교·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10)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디노스트 등 신정치 사고는 현재로서 공산주의 적화노선은 낙후한 것이며 또한 신정치적 사고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방어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외교 정책에도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이익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련의 신 정치사고는 동구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정권이 선거에 의해 탄생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소련의 정치·경제·외교적인 정책은 자국의 이익에 우선권을 둔 정책으로서, 소련은 극동 지역의 지상군 중에서 20만명을 감축하였고 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하였으며, 몽고로부터의 병력철수와 베트남에 대한 원조중단을 감행한 바 있다.

우리는 북방정책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쓴 것은 1983년 6월 29일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국방대학에서 행한 특강에서 이다. 여기서 북방정책인 한·소수교는 북한에 있어 기델 마지막 어원이 무너지는 동시에 때 아픈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소련의 대 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공산화정책이었으며, 또한 공산주의 팽창화 정책은 미·소관계의 냉각상태를 초래하여 동서양진영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가 확립되었던 것이다.

9) 변평섭, "중소의 대 한반도 정책", 「한국의 중·소관계변화와 북한의 개혁전망」, 한국자유총연맹, 1990, pp. 210-211

10) 하용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의대응",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1, p. 236

한편 1988년 우리는 올림픽 때 서울에 소련이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여 주최국의 사기를 고양시켰으며 1988년 10월에는 올림픽때 국가원수로서 U·N총회에 특별 초청된 노태우 대통령은 총회연설에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북한·미국·소련·일본·중국의 6개국이 참여하는 평화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미국과 일본은 물론 소련도 찬성하였다. 1990년 12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소련을 방문하여 1991년 1월에 한·소간의 정식수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소수교는 한국 북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서 이념대립의 해빙을 가져온 세계사의 큰 흐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3. 동서 양극 체제의 붕괴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던 소련의 붕괴 즉 러시아로 됨으로서 냉전은 종식되었으며, 냉전의 종식이 세계에 가져다 준 첫째 질문은 과연 앞으로 국제적인 질서가 평화로운 것이냐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향후의 국제질서가 평화가 아니라 불안이 증가한다는 시각이다.⁷¹²⁾어쨌든 미·소 화해정책에 따라 동서 양 진영간에 대결과 대립을 형성해 왔던 동서 양극 구도는 붕괴되었으며 세계 각국 즉 신 질서의 특징은 첫째, 냉전체제시 양측이었던 미·소가 그 위상이 퇴락하고 그들이 위상 돌입에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군사력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둘째, 양극

11) 정성택, "북방 정책과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북방문제연구소, 1992, p. 112

12) Robert J. Act, "A Defensible Defense: America'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15 No.4. Spring 1991, p. 5

체제에서 체제경쟁의 결과로 되었던 제로섬(Zero-sum)적 사고가 공중논리로 대체되고 셋째, 이데올로기 대립을 탈피하여 실리추구인 외교전략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동·서 냉전 종식은 미·소대결 시대의 종식을 의미하며 따라서 핵무기로 팽팽히 대결하던 미·소가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기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상대가 될 수없고, 이제 미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의 성공 이래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위치를 지켜왔으나 미국과 대결구도 지속으로 인한 경제력 낙후, 체제·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성, 극심한 관료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르바초프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¹³⁾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미·소양 정상은 지난 1987년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으로 유사이래 처음으로 INF(Intermediate Nuclear Forces)폐기 협정을 체결하였고, 1988년 12월에는 지중해의 섬인 몰타에서 「Post-Yalta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신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줄어야 할 것은 핵무기의 대결에 의한 안정성의 문제이다. 미·소간의 핵무기에 대한 대결구조가 사라졌다고 해서 핵공포의 균형의 본질이 깨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의 질서구조는 대립경쟁의 냉전구도가 붕괴되고, 동·서 양진영 국가들 간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그들 스스로의 국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탈 이데올로기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미·소 대결의 종식자체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13) 국토통일원 「소련의 개혁·개방과 한반도」, 1989, pp. 17-18

14) 현인택, “신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1992, 「통일문제 연구」, p. 141

15) 김택환, “중소사회주의 체제 변화와 북한의 개방가능성”, 「통일문답」

더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상과 같이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는 「우리식 대로 살기」방식의 자력갱생노선을 표방하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외부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변화

1991년 봄까지만 해도 세계의 170여개국들 중에서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25개국이었었는데, 지금 공산당은 쿠바·북한·알바니아·베트남등 몇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쿠바·알바니아 등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큰 변화는 사회주의의 보류로 여겨졌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총살처형당함으로써 세습체제를 구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공산당으로서의 체제가 없어지고 말았던 것이다.¹⁵⁾ 3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소련은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 및 사회주의 체제 모순등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1985년 3월11일 체르넨코의 이어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취임, 취임연설을 통해 동서양진영은 평화공존과 긴장완화와의 선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사고·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1년 8월 소련내부 강경보수파들에 의해 자행된 쿠데타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의지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몰락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서두르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영개선, 과학기술

14) 현인택, “신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1992, 「통일문제 연구」, p. 141

15) 김택환, “中小사회주의 체제 변화와 북한의 개방가능성”, 「통일문답」 1990, p. 139

과 산업의 현대화. 한정된 범위의 개인기업 인정, 경제특구의 설정등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¹⁶⁾

또한 폴란드 1991년 4월 5일 자유노조를 합법화시킨 후 6월 4일 민주주의 방식에 따른 사상 처음으로 총 선거가 실시되었다. 한편 쿠바는 지난 3여년 동안 공산주의와 레닌을 찬양하면서 러시아 혁명이 없었다면 쿠바혁명도 불가능했을 것 이라고 역설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는 실패하여 왔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련공산당의 몰락과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북한에게 있어 개혁·개방을 위한 큰 외부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최대 경제군사 지원국 이었던 소련에서 연방체제가 붕괴됨으로써 더 이상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북한으로서 큰 충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¹⁷⁾

20세기 최대의 정치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통독은 2차대전의 냉전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므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동·서독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면서 서독에 대한 동독인들의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교류가 추진됨에 따라 점차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양 체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동독의 후진성이 서독에 대해 절대 약세를 면치 못하게 되자 대중의 반발이 「 페레스트로이카 」라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키는 힘을 갖게 하였다.¹⁸⁾

이러한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극임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을

16) 山内一男, 「 현대 중국 경제 개혁 」 (東京:學陽書?), 1988, p. 53

17) 박상건, “동서 이데올로기는 없어지는가”, 「 민족지성 」, 1992. 11. pp. 50-60

18) 서대철, “동구변화와 한국의 외교문제”, 「 치안 문제 」, 1990. 3. pp. 41-45

위해서도 고무적인 사건으로써 독일 통일 이후 제기되고 있는 우리의 통일 회담의 확대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외부적 요인이 분단을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통일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던 독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큰 것이다.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을 체결한 이래 경제·체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접촉과 교류를 매우 빈번히 가져 왔기 때문에 민족간 적대감이나 증오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만 지속해 왔던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동서독의 통일에 대해 별로 논평없이 보도 하면서 남과 북 사이의 「먹고 먹히는 식」의 통일방식은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동·서독의 통일 방식을 매우 두려워하는 하나의 사실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동·서독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동독주민의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통합된 것인양 보도하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다. 아무튼 동·서독의 통일은 폐쇄와 고립노선을 변함없이 고수해 가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임과 동시에 체제개혁을 위한 자극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第 3 節 北韓體制의 變化過程

1. 김일성 체제의 확립 단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정권을 수립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바,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 남한에서 활동중인 남노당 일파, 중국과 소련에서 활동하던

연안파와 소련파와 관련된 공산주의자들이 저마다의 정통성을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려고 경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이 소련의 전적인 지원을 얻었다 해도 김일성 단독 정권을 수립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이 북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잡다한 공산주의 세력들과 협조하거나 반대파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⁹⁾

제 세력들과의 협조체제는 1946년 8월의 노동당과新民당이 합당대회를 통한 통합이 시초가 되었으며, 이어 1948년 3월에 북조선 노동당 2차 당대회를 통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을 흡수 통합하여 김일성 정권 수립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렇게 정권을 잡은 김일성은 남한에서 활동하던 남도당파의 핵심세력을 정부의 요직에 기용하였으며, 1948년 7월9일 북조선 제5차 인민회의에서 인민 공화국을 근간으로 하는 북조선 헌법을 통과시켰다. 인민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에 의해 김일성은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주석직에 취임하였으며, 북한의 최고기관이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하는 절대자로서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²⁰⁾

김일성은 정권을 수립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상술한 바 있는 제 세력과의 통합과 협조도 했지만,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숙청의 제1단계로서 김일성을 반대하는 조만식을 비롯한 민족 진영 인사와 민족토착공산주의자들인 국내파 북노동 계열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제2단계의 숙청 대상은 국내파 중에서 세력이 강했던 남로당 계열과 연안파 책임을 이들 계열이었다. 이 세력의 제거는 1950년 6.25사변의 패전 책임을 이들 계열에서 뒤집어 씌우기 위한 술책이었다. 이로써 김일성은 1인독재체제를 확립하고 강력한 공산주의 정권을 구축하게 되었다.

19) 박완신, 「前掲書」, pp. 65~66

20) 김창순, 「북한오십년사」, 지문각, 1961. pp. 97-98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연안파의 무정과 소련파의 허가이, 남노당의 박헌영과 이승엽 등의 세력을 반당 반혁명적 책동과 간첩 종파도당이라는 죄목으로 숙청을 한 김일성 일파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김일성의 지도체제는 거의 확고해지게 되었다.²¹⁾

2. 김일성 주체사상의 통치이념과 단계

1956년 8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파가 김일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으나 실패하였다. 이 사건 이후 김일성의 지도체제는 거의 확고해졌으며,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도 심화되어졌다. 김일성은 1958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일성은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난하고 김두봉을 비롯한 연안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미 숙청된 이전의 주요 정치세력 지도자들을 비판하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김일성은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북한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한 김일성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을 강조하면서 남한 지역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의 전략을 계속 추진·강화해 갔다. 또한 1961년 5월16일 남한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자, 북한의 대남 전략은 적극성을 나타냈다. 남한에 대한 대남 전략과 더불어 김일성 정치 사상 사업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경제복구와 스탈린 사망·후르시 초프의 평화공존노선에 따라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주, 군사에서의 자위를 강조하여 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므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²²⁾ 이어 1962년 12월에는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였고,

21) 정규섭, “북한 외교 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 40

1964년2월에는 사상혁명·문화혁명·기술혁명이란 3대혁명노선을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반미 구국 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을 형성 하였으며, 1965년 6월 22일 한일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었고 월남전과 한국군 파병 문제가 구체화됨으로써 북한의 대남 전략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하에 폭력혁명을 통해 대남 혁명을 완수하려고 하였다.²³⁾

김일성은 1966년 10월 5일의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전국적인 공산혁명의 완수를 선언하였고 1969년에 남북통일의 기본방침과 연방제 통일만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9년말 국제적 상황이 제3세계국가의 증가, 미·소 양극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서의 변화와 긴장완화, 중·미간의 접근 추세로 변화해가자 북한은 대남 혁명 전략인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수정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추세에 영향을 받아 1970년 제5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북한의 모든 정책 결정이념이 되었다. 이와같은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 결정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준거 틀이 되고 있다.²⁴⁾

3. 대외 개방체제로의 준비 단계

미·소 양극 체제가 대립했던 양극구도는 붕괴하였으며 화해 정책으로 변화되어 냉전하면서 양축이었던 미·소는 퇴락하고 군사력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탈피하여 실리추구 외교전략으로 옮겨져 가

22) 박채용,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정책에 관한연구", 건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 72

23)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1권」, 통일원, 1986. pp. 842-852

24) 돌베개, 「북한조선노동당대회 주요문헌집」, 돌베개, 1988, p. 333

고 있다. 핵무기로 평평히 대결하던 미·소가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져 김일성·김정일 세력구축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통치화하고 완수하려고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우방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북한은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의 성공이래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켜왔으나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많은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 동구권 국가 또한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하는 루마니아·폴란드·쿠바 등 여러 공산주의 국가가 민주적인 자본국가로 되어 감으로서 공산국가들의 변화 움직임이 더해 가는 것이었다.

또한 20세기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은 통일 독일을 바라보는 이른바 「 동방정책 」을 시발로 하여 꾸준히 시도되어 온 서독민들의 통일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독일의 통일은 우리에게 커다란 자극임과 동시에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사건으로써 독일 통일 이후 제기되고 있는 통일회담의 확대는 그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외부적 요인이 분단에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통일이 훨씬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렇지 아니하였다. 한편 중국은 1990년 중국의 북경 아시안 게임에 대규모 선수단 파견과 1988년 올림픽 때 매우 친밀하게 되었으며 또한 한·중 무역 대표부가 개설되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북한은 중국과도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5) 김학준, “독일 상황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 「 국제정세 », 국제학술원, 1989, 12, pp. 27-31

이와 같이 소련·중국 등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은 더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회회담·고위급회담 등 많은 접촉을 가지지만 중·소 등의 변화로 볼 때 김일성·김정일 세습 구축은 오히려 내부 결속의 저해하는 추세로 본다.

소련·중국 등에서 북한이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현실점에서 한·중·소 수교는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도 이제는 대외 개방체제로 나와서 세계 조류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너무 폐쇄적인 체제 구축만 하지 말고 개방체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중·소가 변화하며 무역대표부설치와 정식수교 등 엘친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과는 동반자로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북한의 체제구축은 악 영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第 3 章 北韓體制的 特性과 問題點

第 1 節 北韓體制的 特性

1. 북한관료체제의 편성과 권력집중

북한은 관료체제를 주석,수상,내각,인민위원회 등의 최고 권력 기관을 헌법상으로 규정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법적으로 안착시키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였으며, 이러한 정부기관 관계를 제도화 함으로써 강력한 중앙집권적 주석 중심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북한의 헌법은 주석은 권한만 가지고 있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98조 에서는 주석이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를 책임지며, 또한 주석은 국가의 수령이면서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²⁶⁾ 이러한 헌법조항에 기초하여 김일성은 불가침적인 영구적인 지배권자리의 위치에 앉게 되었다.

북한의 최고 직위인 주석직은 중국의 주석과는 제도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그 권한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중국의 주석은 전국 인민대표회에 의해서 파면될수 있고,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집행기관인 전인민대표회의의 상무회의가 최고 국가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권한을 헌법상에 규정하고 있으며, 주석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주석직과는 달리 북한의 주석직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을 소집 지도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정무원들이 사업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은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절대적 권한

26) 김창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89조-99조

을 행사한다.²⁷⁾또한 주석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지만 주석을 최고 인민위원회 인민회의에서 선거될 뿐 소환되지 않으며, 헌법상,국가 부주석.중앙위원회 서기장.정무원 총리.국방위원회서기장.국방위원회 부위원회장을 최고 인민 회의가 선거 혹은 소환할 경우에 주석의 제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석직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최고 기관으로 설정되고 있다.

주석은 국가주권의 최고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지도하고 지휘 감독 및 통제를 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인민위원회가 형식상 주석을 최고로 하는 합의제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석의 자문 보조기관에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김일성 주석이 국가권력의 절대적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김일성 일인체제하의 관료체제로 권력이 집중하게 되었다. 또한 주석은 일체하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는 군사 통수권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무력의 자로서 조약비준 및 폐기 외국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의 징수 권한을 가지며, 각종 법령.명령.결정을 공포하는 등 각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석은 국가권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석제야 말로 북한의 헌법이 보장하는 독재1인 행정 체제의 대명사라고 하겠다.

정무원은 북한의 실질적인 행정직 집행기관으로서 다른 나라와 수교를 맺고 대외사업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졌으나, 제5차 내각개편시에 내각에서 가지고 있던 정책결정권을 떼어서 중앙인민위원회에 넘기고 행정집행권만 보유하고 있다. 정무원은 신 헌법하의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직 집행기관으로서 또한 과거의 내용이 헌법상으로 최고인민회의 및 그 상무위원회의 하위에

27) 박완신, 「前掲書」, p.127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일성 수상 으로 하여 정책 수립 결정 및 그 집행까지 시행함으로써 위의 두 기관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에 비하여 현재의 정무원과 총리는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하위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였다.

구 내각의 권한과 정무원의 중요한 권한을 비교해 보면, 그 내각의 권한으로는 첫째, 직속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통괄 지도 둘째,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대책 셋째, 예산 편성 및 집행 대책 넷째, 각종 사업 지도 다섯째, 전반적인 대외관계 지도 및 조약 체결 여섯째, 군편성 지도 장군,임명 일곱째, 질서유지와 국가이익에 대한 보장 대책

여덟째, 중요기관 책임자, 대학총장의 임명 등의 권한을 들 수 있으며,

정무원의 중요한 권한으로는

첫째, 직속기관 및 지방행정위원회 사업지도 둘째, 경제 계획 작성 및 실행 대책 수립 셋째, 예산편성 및 집행 대책 넷째, 농.공업 및 각종 사업의 수행 다섯째, 조약 체결 및 대외 사업 수행 여섯째, 인민 무력 건설 사업 수행 일곱째, 질서유지와 국가이익의 공민권 보장대책등을 나열할 수 있다.

이처럼 정무원의 권한은 구 내각의 권한보다 상당히 축소되었고, 이는 중국의 국무원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구성원은 총리와 부총리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장들로 구성되며, 총리는 국가 주석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인민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이러한 정무원은 기구개혁으로 인하여 집행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었고, 그 권한도 대폭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중앙인민위원회는 1973년 12월 사회주의 實法에 의해 신설된 기구로서 실법상 국가 공권의 최고기관으로 되어있다. 이의 구성원은 국가주석,부주석,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중앙인민위원회의 창설한 이유는 당과 국가간의 권위 및 권력 분립에

있었으나, 이는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았고 입법위원의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중앙인민위원회를 창설한것이라고 판단된다. 인민위원회는 국정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삼권의 분립원칙을 무시하고 있으며, 중앙인민위원회 수위는 주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군사의 모든 면에서 주석을 보위하는 중앙 인민위원회권한은 광범위하다. 이러한 광범위한 인민위원회의 중요한 권한을 들어 보면, 유사시 전쟁 상태의 동원령 선포, 주요군사간부의 해임 및 임명, 국가의 대외 정책 수립, 정무원과 인민위원회의 상벌지도, 헌법과 각종 법령 및 명령의 감독과 시행, 국방 및 국가정치의 보위 사업의 지도, 정무원 성원들의 해임과 임명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북한 헌법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중앙인민 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회의 수위인 주석은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타 구성원의 소환도 주석의 제의에 의해 결과적으로 주석이하의 구성원이수위인 주석에 법률적인 책임을 지게되는 1인 지배 체제를 확립해 놓았다. 이러한 북한 권력기관은 김일성 부자에게 집중되는 강력한 판료 체제로 구성 되어 있는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당은 정책결정을 좀더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지침으로 시달하고 이를 받아 중앙위원회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이를 좀더 구체화하나 작업은 정무원에서 이루어지며, 정무원에서 구체화된 정책지침은 행정계통을 따라 하급단위인 수급기관에 전달되고 여기서는 다시 군급 기능으로 하달된다.

2. 조선노동당 일당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정체제는 줄곧 김일성1인당

독재체제구축 강화를 위한 정치적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²⁸⁾ 김일성 지배 체제는 줄곧 독재 유지 강화를 위해 모든 권력을 집중한 체계적 테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45년8월의 해방이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였고, 국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소련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자체 단결과 형성에 주력하였다. 즉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김일성을 내세워 여러 가지 행동조직과 복잡한 여러 조직을 그런대로 단일화 내지 조직화하여 북한 행정조직을 재편성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후원과 지도를 받으면서 김일성1인독재에 의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초기에는 공산주의자의 숫자도 적었고 일제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로 인해 공산주의사상이 활성화되지 못했고 공산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민중과 주민들에게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공산주의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고, 강압적인 요소가 많은 것으로 이해되어 공산주의의 정권 창출이나 유지의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소련의 지시를 따라 해외에서 돌아온 혁명가들과 국내에서 투쟁한 혁명세력을 통합하여 북한에 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련의 전적인 지원에 힘입어 북한에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해야 하는 김일성은 남북한을 통틀어 대중적 기반도 가지지 못했고 한국 사회로 부터도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 행정체제의 변천과정은 상술한 바와 같은 초기의 공산주의 정권 수립과 김일성에 의한 권력의 집중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 시기에 나타난 행정의 특성에 따라, 공산지배체제 구축과 동원행정 권력세습 체제 구축과 기술 및

28) 김창순, "정치체제",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pp. 8-18 참조

관리행정으로 단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과 권력 집중과정은 소련 정권의 수립과 공산화과정에 따라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러시아의 공산화과정은 1917년 10월 레닌을 중심으로 한 “불세비키”혁명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소련 연방을 통합하여 소련이라는 국호로 개칭되었고,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한 스탈린 정권은 소련 공산주의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혁명론을 주장하였다. 스탈린은 여러 나라에 대해 프로레타리아에 의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탈린은 주변국가를 공산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탈린의 충실한 심복을 육성할 필요를 느꼈으며, 이러한 심복이 될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따라서 스탈린식 지도자의 선발 기준은 엄격하였다.

이러한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비공산주의자는 선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고 브르쥬아 민족주의에 감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토착공산주의자들도 배제되었고, 둘째, 국내에 정치 기반이 없다 하더라도 충실한 공산주의자를 선택하였으며, 셋째, 스탈린 밑에서 정치훈련을 받았고 클레물린에 복종할 수 있는자로서 가급적이면 나이가 젊은 자를 택했다.

스탈린은 이와같은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자로 김일성을 지목하였으며, 김일성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서 소련의 도움으로 영도권을 장악하는데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장애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연안파,국내파,소련파가 서로 대립하여 영도권의 장악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북한에 정치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둔중인 소련점령군 사령부에 의해 클레물린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게 이르렀다. 김일성은 1인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즉 적대세력을 물리치고 자파세력의 독립성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서 끊임없는 숙청 작업을 감행하였다.

3. 김일성 주체사상의 신봉

主體사상은 통일정책의 기본이념이며, 유일한 사상이며, 통치이념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로 한 것이다. 主體사상은 1972년 노동당 5차당대회 이후 지도이념.통치이념의 구실을 해왔고 1982년대 들어서에는 김일성 주의로 승격되었다. 主體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하고 독창적인 이상이라고 자랑한다. 그러나 형식에 불과한 것이며 스탈린 식과 모택동 방식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혁명사상은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사상이론.방법의 체계이며, 아주 정확한 공산주의 혁명이론²⁹⁾이고 주체사상의 큰 특징은 인간중심의 철학사상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주로 물질세계의 합법치성을 인식하는 문제 즉 물질과 의식 중에 어느 것이 선차적 이인가라는 문제와 초점을 맞추어져 있음에 반하여 소위 주체의 철학은 인간을 모든 사고 중심으로 놓고 인간과 세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으며, 세계개조자로서 인간의 실천적 역할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주체의 철학은 인간을 위한 철학 이라는 주장이다. 인간중심론에 잘 나타나 있다.주체사상은 자주성이란 것을 주장한다 자주성이란 자주적으로 살고 발전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창조성 또한 강조한다. 창조성은 세계를 자기운영에 맞게 목적의식을 가지고 개조해 나가는 사람의 성질이며 인간의 속성이라고 주장한다.³⁰⁾

주체사상은 인간을 혁명의 주체로 생각하고 특히 김일성.김정일에게 복종

29)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철학원리」, 사회과학 출판사, 1985, p. 41

30) 하수도,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일성 사상 비판」, 백두, 1988, p. 292

하는 인간형의 창출과 대중동원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¹⁾주체사상은 인간중심주의 사상이다. 그러면 과연 주체사상이 인간을 위한 철학인지 알아보자. 주체사상이 근본문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리라는 점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적 근본 문제는 제기하고 사람이 주인이며 결정한다는 원리입니다.³²⁾이처럼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체사상에 의하면, 당연히 북한의 인민이 북한사회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하며,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김일성.김정일부자가 중심이 되어 북한사회의 주인 역할을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며, 북한의 주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의 당의 사상은 곧 그 당의 수령의 사상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이 당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되는 것은 수령님에 의해 제기된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의 과학성.현명성.주체성에 의해서 규정된다.

또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를 볼수있다. 사회 역사 원리란 새로운 역사관 즉 주체사관으로 본다. 인민 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라고 강조하면서도 혁명운동에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인 운동을 강조하면서 사회개조·자연개조는 물론 인간개조 까지 하고 있다. 사회 역사 이론은 인민대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이지만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참된주체가 될수있다는 논리이다.

31) 김갑철, 「주체사상과 북한 사회주의」, 문우사, 1988, p. 160

32) 하수도, 「前掲書」, p. 291

이것은 인민을 수령의 지배에 절대 복종하는 인간으로 개조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을 보면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당과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이다. 여기에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며 사상의식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위한 근본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이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전략, 전술인 동시에 북한의 인민대중을 사상개조·인간개조하여 혁명의 도구로 내세워 졌다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북한의 통일 정책의 기본 논리로 본다.

주체사상의 혁명이론은 주체시대 노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이론이며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분역의 공산주의 혁명이론입니다.³³⁾

주체의 혁명이론에는 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이론과 사회주의혁명이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이론 세계혁명이론 주체개조이론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이 있다.

결국 주체의 혁명이론은 혁명과 건설을 내세워 북한 주민들을 목적 지향적인 수단으로 개조하여 그들의 목표인 대남 혁명에 이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主體의 혁명이론은 북한통일정책이념의 기본사상이자 전략,전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할 것이다.

4. 권력 체제 세습의 구축

세습체제, 즉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등장 배경을 논의하려면 1970년대의 북한 정치 상황을 알아보아야 한다. 1967년에 북한은 유일 사상 체제 확립을 당 전원 회의에서 정의 하였고, 1972년 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33) 사회과학 출판사,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사회과학 출판사, 1985. p.17

주체사상이 결정되었으며 동년 12월 27일 최고 인민위원회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북한 정권의 지도 지침으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당대회에서 새로이 정정된 신헌법에 의해 김일성은 1인 절대자로서의 독재권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여 권력 세습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결국 김일성 .김정일 세습 체제는 1972년에 와서 제도적으로 기반을 이루게 되었고, 1973년에 김정일 후계세습체제는 주춤하다가 1980년10월의 로동당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정치권력을 김정일에게로 계승 작업을 본격화시켰다. 이러한 계승 작업의 일환으로 1962년부터 1972년까지 김정일이 당지도 간부로서의 훈련을 받았는바 , 이 시기에 김정일은 당조직 지도원에서 당선전 선동부장으로 승격했었다. 또한 김정일은 1976년에는 검출한 영웅, 1982년에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등으로 호칭의 변화를 보였으며, 소련 중국등의 공산국가 수교국으로 부터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당과 노동계급 및 인민대중의 최고 수뇌인,김일성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체제하에서 김정일 비서에 의한 후계체제는 조선노동당이라는 당을 공간으로 해서 세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주장되고 있는 당의 개념과는 달리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고 수령의 사업을 계승해 나가는 정치적 계보가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원이래 1973 년- 1990년 9월에는 당권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3대 혁명 소조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전반적인 지도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1973년 9월 제5차 전원회의와 1979년 2월 제5기 7차 회의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인간의 지도자로 추대되는 결정이 있었으며, 1980년 12월 제16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일이 당비서 정치국 상무위원

점 군사 위원 등 실천을 장악하여 김정일의 후계자 지위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第 2 節 北韓體制的 問題點

1. 공산당 일당체제의 경직성

처음 공산당 일당체제로 인해 김일성 아무런 대중적 지지 기반가지지 못한 것이 실정이었고 명분 있고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나 이론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로 부터는 소외된 존재로 여겼으며, 김일성은 세력을 다지기 위해 적대세력인 연안파·소련파·남노당파 등을 권력 상층부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김일성 일인독재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특히 김일성 일파는 여러 각지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공산당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적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 수립에는 적지 않은 장애 요소가 상존하고 있었다.

북한 공산당 정권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형식적이고 불일치한 行政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 많이 있어서 행정관료와 주민들은 억지로 따라야 했으므로 주민과 관료들의 불평불안과 반발이 대단했으며, 대중들의 인간기계화 즉 도구시 하는 것과 소외 현상을 가져왔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와같은 불평불만과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내외의 계급사업과 교양사업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일당 주체의식을 본격적으로 내세운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 선동원들을 모아놓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

하고 주체를 확립하는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 었다. 여기서 김일성은 왜 사상사업에서 주체의 확립이 필요하게 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 말로 우리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이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³⁴⁾

김일성은 이와같은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당의 조직과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독재기반의 확대와 제3차 당대회에 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포석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체사상을 확립하면서 독재를 강화했지만 많은 부작용과 불만 세력들이 확대되어 갔다.평소 김일성의 독주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연안파의 이론가 최창익과 소련파의 이론가 박창옥 등은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이용해서 김일성의 독재권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집단지도체제는 실현시키려고 하였다.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고 개인숭배를 더욱 강화하여 독점적인 권력을 향유하고 있던 김일성은 1961년부터 착수한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차질로 시련을 겪게 되었다.

한편 김일성은 당과 수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수령의 지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또하나는 사상 의식의 결정적 역할과 사상 개조 및 정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건설에서 사상교육·정치학습등 정신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은 최근 중국.소련 그밖의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정신적 자극의 한계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34) 김일성 선집 4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0. P.326

김일성 일당독재체제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북한 일당체제는 경직성을 가지며,앞으로도 많은 불리한 점을 가지고 한계성에 도달할 것이다.

2.과도한 군사력 강화로 경제적 파탄

남.북한은 1945년부터 1992년을 정치·경제·사회 군사적 측면에서 심한 경쟁과 대립의 상태를 보여왔다. 특히 남·북한은 군사적인 면에서 더욱 더 심화되었던 것이다. 북한은 1980년 중반까지 남한보다 군사적 측면에서 우위는 점유해 왔으나 그 이후부터 군사비는 남한에 추월당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군사력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적으로 능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한의 군사비가 GNP의 5%정도이고 북한의 군사비가 GNP의 20-30%임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 엄청난 군사비 지출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군사비 지출로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자세히 보면 북한의 경제 성장은 1990년도에 마이너스 3.7% 이고 1991년에 마이너스 5.2%의 성장율을 보여 침체폭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군사비를 파악할수있으므로 경제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사비가 북한의 군사비를 능가한지 오래 임에도 아직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하여 열세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공식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표1-1>에서와 같이 군사비는 1976년부터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여 1992년 현재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약1.9배 수준이다.

<표1 - 1> 남·북한 군사비 비교

구 분 년 도	1974	1976	1980	1984	1988	1990	1991
한 국	24.6	38.4	58.1	63.8	86.3	93.3	101.9
북 한	28.8	33.2	40.4	45.5	46.9	49.6	49.7

자료 91년판 「국방 백서」, 「단위 억불(90불변가)」

군사전력투자비는 공산체제와 자유민주체제의 특성 때문에 1986년도에 가서야 단년도 투자비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서 군사비는 일반적으로 병력·장비·시설유지등 현존 군사력 유지에 사용되는 운영유지비와 무기·장비구입·연구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자되는 전력발전 투자비로 구분하고 있는바 북한은 국가통제하의 강력한 군사력 건설정책에 의거해 전체군사비의 48% 이상을 전력 증강에 투자해 온 반면 우리의 군사력은 군사비의 상당부분을 인건비·장비 및 시설유지비에 투입 함으로써 연평균 전력 투자비는 전체 국방비의 33%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비 총액의 증가에 따라 단년도 투자비는 1986년에 북한은 능가하기 시작하였지만 투자비 누계에서 보면 1991년 현재 북한의 8%정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군사비 및 투자비의 절대적 비교에도 물가 상승률 및 환율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군사비 및 실질 구매력은 더욱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실지로 70년대의 북한의 물가는 연평균 5.3% 상승에 그친데 반해 우리는 연평균 17.2%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1973년에서 1992년 기간중 우리의 경상 국방비는 연평균 약 18% 증가하였으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국방비는 대략 연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높은 환율 상승은 군사수입부담을 가중시켜 무기체제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전력 발전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군사전략 및 교리를 채택하였으며, 군사 기술적 기반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으로 하고 저 투자 저 소모형의 무기체제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영하는 것이며 전시에 선제공격 및 공격의 집중화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 형 군사전략 교리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자본과 고도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전략화는 추구하여 소수정예주의 교리에 입각하고 투자 고소모형의 무기체제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술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짧은 방어 개념을 채택할 수 밖에 없어 방어선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전력증강에 투자를 북한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다.³⁵⁾

이상과같이 남북한 군사비 지출 특히 투자비의 전력증가. 기효과는 단순히 투자액수의 절대규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개념.무기체제의 설계개념에 따른 비용.공격 및 대응수단확보에 필요한 소요비용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하는 바 한국으로서는 북한에 비하여 자원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전력발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바와 같이 북한의 GNP및 군사비 규모는 살펴보았다.

북한의 경제규모 및 실질 경제력은 자료의 제한성 및 신뢰성 문제 외에도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또는 시장체제와는 서로 다르므로 절대액수의 해석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1992년도 북한의 군사비를 51억 3천만 달러로 국방백서의 발표액수인 49억 7천 달러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북한은 과다한 군사력 강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35) 국방부, 「국방 백서」 1989, 1991년판

팽창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과다한 군사력을 줄이고 경제에 투자하여 선진 공업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내외적으로 군사비에 너무 많이 치중한 나머지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비로소 개방과 통일이 가까워 질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회복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점차는 경제상황이 좋아질 전망이다. 장기적 시각에서 남측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개방해서 북한의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개방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저항

중국이 1980년경부터 실용주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고, 1985년경 소련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중국과 소련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소련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으로 인해 많은 교류와 양국관계는 긴밀해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남북간에 있어 변화하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져와야 할 것이다.³⁶⁾

소련과 동구의 여러 나라들이 개혁과 개방의 물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산주의 개혁을 거부하고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폐쇄체제로 나갈 수 있을지 심화 저항이 있을 것이며 북한은 앞으로 더 이상의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며, 개혁을 거부할 경우 국제적 고립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개방은 당위적이며 필연적인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 및 동유럽국가의 개방과 개혁은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소련은 북한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

36) 김택환, "중·소 사회주의 체제 변화와 북한의 개방 가능성", 「한국의 중·소관계 변화와 북한의 개혁전망」한국자유총연맹, 1990, p.154

지만 북한은 옛것을 지키는 수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화해조류를 타고 개방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內外的으로 개혁과 개방에로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에 나온 것은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경제 개방의 필요성에 있기 때문이다.

공산권의 개혁·개방과 민주화의 움직임은 어느 한 공산국가의 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는 모순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민주적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민중의 아래로부터 억압받아 오던 것이 민중의 민주화 요구와 일치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공산국가들이 민주화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다.³⁷⁾

북한은 일인독재체제로 지배해오면서 통제 경제체제는 대내적으로 폭발될 것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혁명세대들의 반발과 개혁개방화의 명분·통치기반의 위협, 경제적 개방에 따른 정치에의 파급 효과등을 우려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한·중·소 수교로 남·북한 관계는 변화의 조짐이 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 고위급회담으로 체제유리적 부분개방과 교류에 그칠 확률이 높다. 우리로서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 할 지라도 도전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김일성 독재 체제·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지만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소련등 동구 여러 나라의 개방과 개혁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소련등 동구 사

37) 김택환, “중·소 사회주의 체제 변화와 북한의 개방 가능성”, 「한국의 중·소관계 변화와 북한의 개혁전망」, 한국자유총연맹, 1990, p.155

회주의 국가와 우리가 관계를 수립함으로서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되는 느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중·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에서 북한은 모스크바와 북경에 다같이 전략적 요충지로 되어있으므로 소련과 중국은 항상 북한이 자의나 타의나 중·소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중·소의 개혁이 확대되는 마당에 「주체사상」과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만 가지고 북한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공산권 변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미·소의 체제개혁 및 공산권 변질이 바로 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개혁과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개혁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인가³⁸⁾

위로부터의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인가. 혹은 동구권 처럼의 개혁인가 북한은 동구권의 민주화 움직임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급을 피하고 있고 대내적으로 사상결속의 필요성과 체제우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개혁 물결에 맞서 보수적·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직도 김일성을 비롯한 이른바 혁명세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남조선해방이라는 논리가 유효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내 체제 개혁의 입김이 커지고 김일성의 사망과 정치관료의 체제유지의 목소리가 약화 될 때까지 우리의 북방정책의 목표로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해야 될 것이며 또한 북한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북한의 사정을 잘 살펴보아서 북한이 남조선 해방노선을 포기하고 상호 체제 안정의 방향으로 나오도록 유도해야 될 것이다.

38) 조기수, “북한 개혁바람 거부와 한계”, 「자유공론」, 1990.3. pp.229 - 231

第 4 章 北韓體制的 變化와 南北韓 關係의 展望

第 1 節 北韓體制的 變化의 展望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공산정권에서의 변화는 제1세대 지도자들이 사망하거나 권력의 일선에서 물러남으로써 비롯된다. 물론 이러한 원인은 권력승계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이로 인한 권력투쟁의 확산, 후임자의 전통성 확보를 위한 1세대 격하운동 및 정책의 추진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과정도 공통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되기 마련이다. 즉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다음 사회도 개방화와 공업화를 거쳐 급속한 변동을 경험하게 되면 이데올로기의 요구보다도 경제발전과 생활향상이라는 현대화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코자 한다. 이 경우 정치·경제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끌어내 생존과 지속적인 집권의 길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결과 계급투쟁보다는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지양하고 시장기구를 도입하며, 정치적으로 1당 독재를 완화하고 정치적 다원주의(pluraism)를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채택할 만 한 분위기 조성되어 있지 않다. 현재 북한은 김일성 - 김정일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각구성이 1992년 12월에 단행된 바 있다. 즉 김정일의 측근인 강성산을 정무원 총리에 임명하고 김달현등의 추종세력을 요직에 기용하였다. 이러한 현

상은 김정일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북한의 정책이 경제 개혁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산성은 1984년 총리에 기용된 뒤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합영법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최근에는 함경북도 도당책 겸 책임비서로 있으면서 나진 선봉지구 개발등 두만강 경제 특구개발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당비서의 신임을 되찾은 인물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대화도 복잡한 정치외교적인 대화보다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고위급회담 등 외교적 채널보다는 남북합작공단 건설,두만강 특구내 남한 투자유치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³⁹⁾

강산 총리 등용과 함께 당정치국원 후보위원에 기용된 김달현 국가계획위원장, 김용순 국제당비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북한이 이번 인사개편에서 노리는 바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즉 이번 인사에서 북한의 개방노선이 더욱 선명해졌으며 핵문제 및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간첩단 사건 등으로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 정협에도 장기적으로 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한의 정권교체가 끝나는 1993년 3월 이후에는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⁴⁰⁾ 그러나 급속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현재의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이 다분하기 때문에 남북교류등의 개방정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내부적인 정권 붕괴요인을 제거한 후에, 경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대외 개방 정책을 실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39) 동아일보, 1992년 12월 11일자, 1,2면

40) 서울경제신문, 1992년 12월12일자 2면

第 2 節 南北韓 關係의 展望

1. 사회 정치적 전망

북한은 모든 인민들을 김일성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새인간으로 형성하는 특정한 정치 사회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어린이 보육 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체제에 준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와 공산주의 인간성을 주입하고 있다. 사회교육을 보면 첫째로, 영.유아기에서는 탁아소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중요시한다.

북한에서는 유아기때에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한하고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 양육 방법에 깊이 관여한다. 어린이는 4~5세 때부터는 유치원에 가서 교양원의 가르침을 받는다. 교양원들을 김일성 혁명역사 이야기, 만경대 모형에 의거한 김일성의 어린 시절 소개, 미군.지주.자본가.관리들의 횡포 이야기, 혁명 가요 부르기, 반미적인 연극 활동, 반미적 전투적 내용이 담긴 만화와 그림, 전쟁놀이, 무용, 운동, 산보, 그리고 간식 제공 등을 통하여 1. 김일성에 대한 고마움, 존경, 복종심을 기르고 2. 미군 지주, 자본가, 관리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3.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첫째로 그들의 '적'이 무엇이고 그러한 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모든 사회 관계에서 각자가 취해야 할 행위의 표준을 김일성의 과거 행동 가운데서 찾게끔 가르친다는 것이다.⁴¹⁾

둘째, 후기 아동기에서는 인민 학교 교육과 소년단 조직 생활은 중심으로 교화시킨다. 소년단의 조직 생활은 만13세가 되는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 계

41) 교육도서출판사 집필 위원회, <사회주의심리학 사범대학용>, 동경, 학우서방, 1974; <북한 학보> 제9집, 1985, p.144

속된다. 이기간은 1. 김일성에의 충직, 미국놈, 적에 대한 적개심 함양, 전쟁 의식 고취 2. 소년단의 정치 사회 활동을 통해 당과 김일성에 무한히 충실하여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붉은 전사,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생활태도는 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예컨대 1982년 6월 6일 조선소년단 결성 36주년을 맞아 소년단은 김일성과 당에 절대 복종하는 주체혁명의 후비대로 육성시켜 나갈 것을 재 다짐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주체사상 교양 사업을 적극화시키도록 촉구했다.

42)

셋째, 초기 사춘기에는 고등중학교와 사로청의 역할이 강조된다. 고등반부터는 사로청 맹원으로서 정치 사회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사로청의 맹우인이 된 학생은 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사로청의 조직활동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의 후계자로 양육된다.

넷째, 후기 사춘기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과 직장 배치 과정을 통해서 정치 사회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은 각자 맡은 바 과업 완수를 위한 노동 생활, 조직 생활, 학습 생활에서 지배 집단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고, 감정, 행동 유형에 보다 충직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북한땅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이는 그 만큼 완전조직사회 속에서 완전한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북한의 이러한 정치 사회화과정은 독특한 의식구조를 양성한다. 오늘날 북한의 후계 세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적 양육과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외부 영향력이 최소한도로 제한된 폐쇄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이들은 순수한 공산주의자로 양육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소위 주체형의 공산주의

42) <내외통신> 1982년 6월 18일자.

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가장 고루 갖춘 인간들이라는 뜻이다.⁴³⁾

남한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태도일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이질화는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교육적 환경의 장기적인 이질화 이념, 사상의 상호 불신으로 인한 장기적인 이질화로 심각한 대립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은 단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단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통일 방안은 무력통일·흡수통일·협상통일·장기공존에 의한 등 4개의 방안이다. 교육방식도 통일방안과 마찬가지로 흡수통합·연방식 통합방식·표준교육체제 통합방식 등이며, 통일에 의한 교육제도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더 이상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준까지 개선을 서두르는 일이다. 특히 교육적인 면에서 북한의식 무상교육 제도를 남한에 적용시키고, 북한의 무상교육까지 떠맡는 가운데 북한교육의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예산의 배정 및 조달방법에서 변화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⁴⁴⁾

한편 1945년 이후 일제로 부터 지금까지 사회체제와 정치체제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으며, 남북한간 서로의 이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북한간 정치·사회적 체제개혁이 우선되고, 그 이후의 민족의 공통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정치의 변화는 단시일내 달성은 어려우며, 점진적인 개혁방안을 실천해 가야할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사회적인 체제는 다분히 김

43) 교육도서 출판사, <사회주의 심리학>, <사범대학용>, 동경 학우서양, 1973, pp.221-252.

44) 세계일보, 1992년 12월 9일자 12면.

일성 유일체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고, 주체사상과 갑자기 체제변화는 체제붕괴와 정권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서 체제변화를 망서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정권은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사회의 과감한 민주화를 추진하고, 반공법을 개정 및 폐기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북한보다 한발 앞선 체제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의 연구와 노력이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수립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2. 경제교류에 대한 전망

남북한간의 교역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1959년 9월 21일에 북한이 한국의 수해로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 구호를 제의한 때이다.⁴⁵⁾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발전단계는 호혜적, 직간접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기반을 확립하는 신뢰구축단계로 볼 수 있으며, 1963년 12월 10일에 북한이 남북대표상설경제위원회의 설치를 제의함으로써 다시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약 10년이 경과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교역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남한은 이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경제개혁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과제는 북한의 개방개혁추세에 맞춰 상호보완성이 큰 부분부터 교류해나감으로써 경제체제도 점진적인 균형의 상태가 될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은 경제교류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간 단일 경제공동체의 형성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간 정상적인 경제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경우 실익이 보장될 것이다. 남북한

45) 조선일보, 1992. 7. 16. 일자 참조.

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교류 및 협력의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간접교역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둘째, 남·북한 양지역이나 제3국에 대한 공동투자 기술교류 자원공동개발등이며, 셋째, 교통, 통신, 금융 등과 같이 상품거래 혹은 투자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하부구조의 공동구축 가능하다. 넷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금 및 현물의 공여, 또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에 있어서 남북한 당국의 합의와 지원하에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양측 정부의 관리하에서만 가능하므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남북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교류 협력분과의위원회와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에서 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협력대상을 발굴하며, 둘째, 대외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남북한거래를 국내거래로 인정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셋째, 경제교류협력의 전도성에 대해 북한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북측 현실에 대해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관계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제교류 및 협력의 추진은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노력임을 상기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조하게 충분한 인내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경제교류를 물자교류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며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한편, 1978년 6월 23일 한국이 남북한 교역, 기술, 자본협력에 관한 경제협력추진을 제의하였으며 1982년 2월 1일에도 20개 경제시범 실천사업을 제의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가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는데 합영법 제정 후 북한의 태도변화로 1984년 11월 15일부터 1985년 11월 20일 까지 5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1986년 1월 12일 6차 남북경제회담을 연기한다고 북한이 통보해옴으로써 중지되었다.

이후 1988년 12월 7일에 한국이 경제문제를 포함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한 후 남북한 민간교역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2년 7월 19일 김달현 북한 부총리가 서울 방문도 남·북한 경제협력의 돌파구를 찾아보면 북한의 판단인 것으로 보며 또한 남한의 부총리 상호방문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⁴⁶⁾

현시점에서의 세계적인 흐름은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안보정책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더욱더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일시적 침체, 붕괴작전의 북한경제 발전, 한국경제의 일시적 침체 붕괴작전의 북한경제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ASEAN제국의 경제적 역할의 증대, 1992년 8월의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격적인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 캐나다, 멕시코)결성의 선언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결성의 확실히, 남미와 중미의 경제협력체 결성 가능성등의 지역경제권 결성 움직임은 동북아 경제협력기구탄생이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⁴⁷⁾

46) 서울경제신문, “김달현 부총리 서울 방문”, 1992.7.25.3면.

동아일보, “김달현 부총리 남행의미: 남북관계 숨통기대”, 1992.7.25.3면.

47) 동아일보, “NAFTA와 우리경제파장”, 1992년 8월 13일(3면).

3. 군사적 관계에 대한 전망

우리가 북한의 군사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군사력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전쟁도발의 위험성 때문일 것이다.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의 실태를 알고, 그 비참성을 절감토록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일이다. 그러나 전쟁은 제거되어야 할 재앙이다.(War is a plague which ought to be eliminated), “전쟁이란 회피되어야 과실이 다”,(War is a mistake which should be avoided), 혹은, “전쟁은 죄를 받아야 할 범죄다”라고 주장 하는 데는 아무도 반론이 없을 것이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19개국이 개입하여 1900만명의 민간인과 1,700만명의 군인 합계 3,600만명의 희생자를 냈다.⁴⁸⁾

남북한은 분단 후 지금까지 계속적인 군비경쟁과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휴전선을 중심으로 현역상비군 160만 - 170만명, 예비군 700만 - 800만명이 첨예하게 대립된 대치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인 대치상태와 군사력 균형을 지난 40여년간의 극심한 냉전상태하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억제력으로 작용해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현재 국제정세가 긴장완화와 상호협력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바, 이제부터 남북한 상호관계 새로운 차원의 균형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한편 군사력을 수준 별로 구분해 보면 상비군사력 동원군사력 전쟁잠재력으로 나눌 수 있다.⁴⁹⁾상비군사력을 보면 <표1-2>와 같다.

48) Ruth Leger Sivard,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 1986.
Washington : World Priority 1987, p.11.

49)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델링에 의한 남북한 군축인력규모분석”,
「국방논총」 제16호, 1991, 겨울, pp.59-62.

<표1-2> 남북한 상비군사력 비교

	남한	북한	비교
병력	65만	104만	1 : 2.2
사단 (여단)	48개	55개	1 : 2.2
전차	1500대	3500대	1 : 2.3
야포	4000개	9000개	1 : 2.3
전투함	170척	460척	1 : 2.7

북한은 남한에 비해 상비군사력에서 모두 우수한 전력을 나타내고 있는바 병력은 1:2.2 (165만명 : 104만명), 전차 1:2.3, 야포 1:2.3, 전투함 1:2.7, 전술기 1:1.7, 복무기간 1:3.3등의 비율로 북한의 전력이 단연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비군사력 비교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전쟁수행능력 잠재력이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⁵⁰⁾

<표1-3> 남북한 전쟁수행 잠재력

구분	남한	북한	비교
GNP	1451억불	200억불	7.3 : 1
인구	4300만명	2300만명	1.9 : 1
노동력	27 %	30%	0.9 : 1
산업비율서비스	52%	43%	1.2 : 1
농업	21%	21%	1 : 1
수출	607억불	21억불	25.0 : 1
수입	518억불	31억불	16.1 : 1

*.자료 : TIME , July 2 , 1990. p.32.

위에서 군사정책을 볼 수 있으며, 북한이 당면한 전략적 압력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북한이 개방하고 대남 공세적 태도를 포기, 한국과의 관계를 포함, 전반적인 대외관계를 보다 평화지향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전략적 고립을

50) 남만권, "남북한 군사력 비교", 「국방논총」 제16호, 1991, 겨울, p.169.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에 대한 정보들을 근거로 북한이 더 이상 군사력 증강에 과거와 같은 비중으로 국가 재원을 투입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성도 불가피하게 완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기본적인 배경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군사력은 단순히 대남 적화 통일만을 위해 건설되고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 침체를 북한의 군사정책에 있어서 공격성의 포기 가능성과 직결시키는 논리는 그간 북한의 남침야욕만을 강조함으로써 초래되었던 북한의 군사정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의 오류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⁵¹⁾

第 3 節 南北統一에 대한 展望

1.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제조건

남북한 관계개선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제 분야, 즉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남북한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전제조건이 요구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방법을 기술해 보려고 한다.

첫째,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급속적인 관계개선을 지양하고 점진적인 각종 교류를 시행하여 남북한간의 상이한 체제에서 오는 갈등관계를 해소해

51) 이규열, “북한의 군사정책과 변화전망”, 「북방연구」, 제3권 3호 1992 가을호 p. 38.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스포츠 교류·학술교류·이산가족의 상호 방문·관광사업의 확대, 경제교류 등을 통해 40~50년간 계속되어온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가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갈등과 심각한 정치적·체제적 대립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북한체제는 여타의 공산국가들보다 가장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국가형태를 이루어왔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를 지배해 온 세계에서 매우 특이한 형태의 공산국가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자유 국가의 형태를 띤 남한 정치체제와 공산주의적 독재체제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관계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런 남북한간의 심각한 대립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대외 개방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남한은 북한의 개방화 정책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회·교육적 여건의 동질화 과정을 들 수 있다. 남북한 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교육적 환경의 이질화, 사상과 이념의 심각한 대립 상태의 지속, 상호간의 불신감의 팽배, 사회체제의 이질화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은 단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

전 세계 즉 소련, 중국, 독일, 동유럽 국가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립설이나 스포츠, 음악, 영화의 교류를 김일성의 독재지배체제 강화에 역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두개의 조선을 반대한다면서 오히려 민족동질성을 파괴하고 있다. 한사코 개방을 거부하면서도 입으로

만 전면개방이나 전면교류를 선전하고 있다.⁵²⁾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발전의 당면한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지상 과제인 것이다. 남북통일방안은 우리는 민족적인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추구하는 하나의 완성된 단일민주주의 공화국의 실현을 지향한다. 그러나 북한은 연방제의 미명하에 두개의 지역정부 존속 등 미완성형 통일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연방제 통일 그 자체를 실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전제조건을 강조함으로써 공산당의 주도아래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통일방안은 남조선 혁명론⁵³⁾에 따른 선행혁명, 후통일이라는 남한혁명이라는 방책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연방상설위원회 등 연방기구에 대한민국 특정인사의 참여 배제 및 일방적인 규제조건의 강조로 일체의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접근하는 과정상의 차이는 우리는 통일까지의 과정으로 상호개방을 정상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① 민족적 유대의 회복, ② 통일저해요인, ③ 전쟁 재발 방지 등의 전반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유리한 환경을 실질적으로 이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10대시정지침⁵⁴⁾을 운위하면서도 이의 실로는 현실적으로 현실가능성이 없는 남북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고려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결국은 적화통일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저들은 적화통일이 명백해지지 않는 한 남북간의 어떤 교류도 협력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이다.

52) 발간사, “한국의 중·소관계 변화와 북한의 개혁 전망”, 한국자유총연맹, 1991.9.1.

53) 국토통일원, 「북한대요」, 1983, p.306.

54) 노종선, 「민족과 통일」, 1983, pp.242-243.

우리는 초기에는 선통일, 후평화의 정책지향을 갖고 통일을 논의했으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방안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남북대화시도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학생대회 참석 및 판문점을 통한 귀국이 불법적이라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북한은 전대협 전교조등의 반정부활동을 통해 남한의 모든 학생 교사 농민들이 북한을 지지하고 있으며 오직 공무원들만이 남한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문익환 목사의 로마교황청과의 관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는가 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신설계획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⁵⁵⁾

임수경양의 방북은 북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북한주민들은 임수경양을 보고서야 남한에도 통일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같은 대남 인식이 임수경양의 방북으로 크게 바뀌었다. 임수경양은 또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가르쳐 유행시켰는데, 「조국은 하나다」하고 구호를 외쳐도 「조선은 하나다」소리는 끝까지 하지 않아 담당요원이 크게 에를 먹었다.

또한 학생들의 접촉시도는 북한학생들이 겉으로는 사회주의 노동청년(사로청) 중앙위원회와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외교부 조국통일국 및 3호 청사 해당부서의 조종을 받는 관련 단체이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도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현 국제 정세는 소련·동구권·중국의 공산주의 붕괴와 일본 자위대 증강

55) 고병환, “대남정책의 뒤안”, 공보처 11월호, pp. 26-27.

과 해외동맹등의 대변혁에 직면하며, E.C무역장벽 강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NAFTA의 결성, ASEAN제국들의 경제협력강화등이 전세계가 경제 무역전쟁에 돌입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세계는 군사적 대립관계에서 요즈음 경제발전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중국도 경제발전에 주력하면서 자본주의의 기술과 자본, 경제발전을 도입함과 자국의 발전모델을 선정하여 경제발전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북한과 관계를 멀리하면서 남한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경제적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세력의 변화세력은 남북한간 관계를 변화시켜 주요요인으로 최근 서울과 평양에서 고위급 회담,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스포츠회담, 국회회담, 여성대표회담 등의 각종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접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국교정상화나 자유왕래, 군비축소문제에는 접근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아직 김일성, 김정일 세습체제와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러나 북한은 6·25와 같은 전쟁이 주변여건으로 보아 매우 희박하며, 경제협력등 각종 교류도 진지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남북한은 점진적인 교류와 관계개선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여 가야 하겠다. 아래의 몇가지는 통일을 위한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해방후 지금까지 40년 - 50년간을 전혀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고 또한 적대관계에 있었던 것을 동질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이산가족 상호 방문, 스포츠 경기장려, 문화적 교류와 학자들간의 학술교류 자유왕래의 선포등이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둘째, 남북한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반공법이나 북한의 형사법등을 개폐하는 등의 법적·제도적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각각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체제개혁에 실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한의 체제개혁의지는 경직화되어 있는 북한체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서 체제개방과 개혁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심각한 북한경제에 대한 원조의 제공,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곡물의 무상제공, 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지 개발, 남북한 무역직거래를 통한 경비절감 등 같은 대북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남한은 북한의 현 체제는 인정하고 상호 내정불간섭주의를 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으로 대서방과 외교 및 무역거래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개방사회로 나오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1992년 9월 17일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등의 3개분야의 부속합의서가 남북한의 국무총리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합의되었고, 동년 11월 중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기로 의견을 보았다.

56)

남북한간 막혔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문제 등의 중요한 군사작전인 문제는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군축의 논의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6) 세계일보, “남북 부속합의서 발효 의미”, 1992.9.18. (5면)

第 5 章 結 論

북한 김일성을 공산종주국인 소련과 중국의 정권 승계과정에서 권력투쟁과 개인숭배사상의 붕괴 과정에서 소련·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고 김일성 자신의 권위를 지속화하기 위해서 장남인 김정일에게 권위를 승계해 주려는 작업을 항상 진행중에 있으며, 김일성의 고령화와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정도 등에 근거할 때 김정일의 승권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정일 후계체제는 내외적인 압력과 정권유지를 위해서도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보여졌던 티토식 리베르만 방식 및 호네커 개혁방식을 부분적으로 혼합하여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체제의 특징은 행정에 대한 당의 강력한 통제라고 볼 수 있으며, 또 김일성 국가주석의 1인독재체제를 들 수 있다. 또 국가주석의 지도를 받고 있는 중앙인민위원회는 정무원, 최고인민위원회, 상설회의, 사법기관으로 만들었으며 이것은 이중적 기구적 장치에 있어서 당의 통제를 받는다.

북한 헌법상 국가 최고입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최고인민회의는 실제에 있어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형식적인 추진 기관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북한의 권력계층은 북한주민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 또한 북한에 있어 앞으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일부기존원로세대와 북한에서 소외세력들의 불만, 그리고 신·구세력간의 갈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둘째, 김정일 승계에 불만을 품은 김정일 일가간의 족벌투쟁이며, 셋째, 3혁명소조원의 전투식 생산양양에 반대하는

실용주의적 경제각료들, 넷째, 군부에서 숙청 또는 소외된 수많은 장병들이며, 이러한 저항요소들 외에도 김정일 후계체제는 정통성 위기 문제라는 근본적으로 취약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은 북한내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는 김일성이 북한내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숙청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일한 1인독재 체제를 이룰 수가 있었으나 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시기에 따라 변화의 시기적 구분과 진전향상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김일성의 사망 후에 개혁 지향적 세력에 의해서 단시간내에 김정일 후계체제가 붕괴되면, 그것을 보다 본격적이고 민주적인 체제 개혁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과거 김일성 체제가 상당기간 불안한 과도상태를 거치게 되면 거꾸로 개혁후퇴의 안정성 여부는 그 후계자의 개인적 능력과 더불어 김일성 생애에 장차 유지 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의 어느 정도 진전되고 강구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후계체제의 당면과제는 주민생활수준의 어려움과 경제난의 낙후가 최대의 당면과제이며 그것이 후계체제의 직결되는 문제점이라고 볼 때 김정일 체제도 현재 정책들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김일성 사망후 북한은 내부로부터의 북한 변화는 엘리트지향이나 동구와 같은 사람들의 힘형성에 기대할 수 밖에 없지만 북한의 엘리트는 전면적 불안속에서 관리당하고 있고, 일반주민은 전면적 통제 아래서 침묵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런 가능성을 회의적이다. 그러나 심각한 의기의 김정일 지배체제로 볼 때 엘리트에 의한 권력교체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체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후계체제가 된다고 볼 때, 북한은 정치면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모색할 것이며, 경제적

인 침체로 인해 서구와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개방과 개혁은 동구의 대변혁을 초래했지만, 북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소의 변화와 개혁, 개방을 동구의 도미노효과의 파급으로 북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소신데탕트와 중·소의 화해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큰 경제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북한에서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북한은 외부중·소·동구권으로부터 압력과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것은 김일성 부자의 체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내부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체제의 외형을 형식적 다당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위장하는 것이며, 경제정책과 대외 정책 특히 대남 정책에서 신축성을 과시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문제 해결의 요구가 가장 긴박한 만큼 적어도 부분적으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제한된 다원화 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일성의 사망시기에 따라, 변화의 시기적 구분과 진전향상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김일성이 사망 후에 개혁 지향적 세력에 의해서 단 시간내의 김정일 후계체제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보다 본격적이고 민주적인 체제개혁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과거 김일성 체제가 상당기간 불안한 과도상태를 거치게 되면, 거꾸로 개혁후퇴의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후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설여부는 그 후계자의 개인적 능력과 더불어 김일성 생전에 장차 유지가능한 체제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강구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북한의 변화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로 보아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

해서는 개방과 개혁의 길 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 붕괴는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은 더욱더 북한식 사회주의 이론을 정식화했으며 사회주의 원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새로운 것으로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1991년에 합의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분단의 비극을 빨리 청산하고 남과 북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도모하여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아직껏 대남 적화야욕을 포기치 않고 대남 무력 적화기도를 방지하여 전 국민이 하나로 단합하여 유비무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대 물결 이자 변화인 개방·개혁적 추세를 북한이 아무리 「우리식대로 살기」라는 주체노선을 표방하더라도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정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변화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2월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합의서 이행에 끌어낼 수 있었던 점으로 본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한 내 핵처리시설을 포함한 핵장비에 대한 사찰문제의 수용여부가 북한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올 수 있는한 국내외의 시각을 부합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방도에 있어서는 민주국가 2 체제, 2 정부라는 원칙하에 연방제입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은 민족적 대 단결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는 원칙하에 종교·사회단체의 정치 협상회의와 범민련화 같은 통일 노선확립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參 考 文 獻

1. 國 內 文 獻

1) 단행본

강인덕외, 「북한정치론」, (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1977)

강정구, 「북한의 사회」, (서울 : 극동문제 연구소, 1990)

국토 통일원, 「소련의 개혁, 개방과 한반도」, 국토 통일원, 1989.

_____,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1권」, 국토 통일원, 1986.

김갑철, 「북한 공산주의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문우사, 1985)

_____,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문우사, 1988. 김남식, 「북한의 권력 구조와 대외정책」, (서울 : 통일원, 1992)

김준화, 김창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5) 서울 :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6.

스칼 라피노 (공저)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 법문사, 1985)

김창순, 「북한의 오십년대사」, 서울 : 지문각, 1961

국토통일원, 「통일 문제 연구」제4권 2호(1992여름)
(서울 : 통일원, 1992)

둘베개, 「북한조선 노동당 대회」, 둘베개, 1988.

박완신, 「북한 행정론」, (서울 : 회생출판사, 1988)

박재규, 「북한 행정론」,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1984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철학원리」,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대숙, 「정권수립과정」, (서울 : 율유문화사, 1990)

신상식,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 통일원, 1992)

안병영, 「현대 공산주의 연구」, (서울 : 한길사, 1982)

양호민, 「북한의 소비에트화」, 「북한의 공산화 과정 연구소」

- (서울 :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 1973)
- 이용필, 「 북한 정치 」, (서울 : 법문사, 1978)
- 임성현, 「 관료제와 민주주의 」, (서울 : 법문사, 1978)
- 연하청, 「 북한의 경제협력의 정책과정 」, (서울 : 통일원, 1991)
- _____, 「 사회주의 경제계획 」,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 유석열, 「 북한행정론 」, (서울 : 법문사, 1988)
- 정인영, 「 북한의 정치 」,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 최 영, 「 북한개론 」,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 하용출, 「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의 대응 」,
(서울 : 을유문화사, 1991)
- 한영춘, 「 현대 조직론 」, (전정판)(서울 : 박영사, 1987)

2) 논문

강인덕, “도전받는 세습체제 정통성과 권위조작”, 북한, 1985.7.

고영환, “대남정책의 뒤안”, 공보처 11월호.

김갑철, “김정일의 지도이념과 주체사상의 본질”, 북한, 1983.10.

_____ 「북한의 체제변화와 그 전망」, 월간「북한」(북한연구소)
1990.12.

김정복, “북한승계제도와 과정”, 서울대 석사 논문, 1986.

김제덕, “공산주의정권의 승계과정”, 북한, 1982.7.

김정수, “최근 북한의 정치동태 분석”, 통일논총6권2호, 1986.

김창순, “김정일 후계체제확립과 대남정책”, 북한학보 제5집, 1985.

_____ 「북한의 권력세습과 정책화 과정」, 통일론6권 1호, 1986.

국토 통일원

김태수, “북한 체제의 변화요인과 전망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1990)

김택환, “중소사회의 체제 변화와 북한의 개방 가능성”

_____ , 「한국의 중·소관계 변화와 북한의 개혁전망」

한국자유총연맹, 1992.

김학준, “독일상황의 한반도에 주는 교훈”, 「국제정세」

국제학술원. 1989.

나창주, “중공의 현대화 개혁정치”, 「현대사회」 제6권 제1호

통권 2호 현대사회연구소, 1986.

박상진,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여건 비교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1.

_____ “동서 이데올로기는 없어지는가”, 「민족지성」, 1990.

- 박제하, “이상적인 인력모델에 의한 남북한 군축 인력규모 분석”
「국방총론」 제16호 1991.
- 박채용, “북한의 주체사상과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서대철
“동구변화와 한국의 외교정책”, 「치안문제」, 1990.
- 변평섭, “중·소의 대 한반도 정책”, 「한국의 중·소관계 변화와
북한의 개혁전망」, 한국자유총연맹
- 신상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통일문제연구 제4권2호), 1992.
- 윤석향, “김일성 사후 북한 체제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한성대 행정대학원, 1991)
- 이규열, “북한의 군사정책과 변화전망”, 「북방연구」, 제3권 3호
1992 가을호
- 이근수, “4개 현대화노선과 중소평체제”, 「국방논총」, 제16호, 1991.
- 이대근, “북한의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정규섭, “북한 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_____, “북한 외교 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정성택, “북방정책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북방문제 연구소, 1992.
- 정진위, “북한의 대중곡관계”, 「북한의 대외정책」
정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89.
- 최송화, “북방의 헌법과 통일구조”,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1.

최종기, “한소관계의 현황과 전망”, 「민중지성」, 1989.8.

「공산권 개방화와 한국외교의 진로」, 국제문제, 1987.3.

현인택, “신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1992, 「통일문제 연구소」

하동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북한의 대응”, 「북한개론」

울유문화사, 1991.

2. 기타

북방연구소 북한 총람(1983)

김일성 저작집(평양로동당출판사)

북한통일논총, 국방논총 한국의 중·소련 변화와

북한의 개혁전망 한국자유총연맹, 세계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경제신문, 국토통일원

A b s t r a c t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North Korea System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Jeon Byeong Loo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Major in General Administration

There have been little fruits in the 'South and North high level talks in spite of the effort to settle the peace, cooperate the exchange and agree mutual non - aggression. Our concern is not whether the North would open the door for democracy along with the world trend of thimes or insist on the isolation and closed society but how they be opened.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south-North unification bassed on the character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2nd chapter of this study.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the change of North Korea, We studied the examples how Russia and china have drived the policies of opening the doors by the unique way of separating the politics and economics, and the changes in the eastern socialist countries. By chosing the unique style of the change in which they pursued the economic reform of opening doors but disregared the political reformation this China invited the incident of Chunanmoon. on the other

hand in the 3rd chapter, the unique system of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studied before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the North.

The character of North Korean Totalitarianism ; We may say ;

- 1) Bureaucratic ideology of kim Il Sung
- 2) Oppressiv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for watch and regulations.
- 3) A sole party led by Kim Il Sung only
- 4) Monopolizing the mass-com for ideological education and effective fabrication of the people.
- 5) The centralized and planned economy
- 6) Privat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the national wealth.

The above facts have been disclosed.

The actual facing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regime of totalitarianist ar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father and sonheredity and the recovery of the stagnated economy. the problem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fac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nheritor system are ;

- 1) the unrest of the estranged and purged powers and the discord between the new and old powers.
- 2) The troubles between the military powers and the 3 revolutionary small groups and the discontent of the military side.
- 3) The discord between the practical bureaucrats and the other bureaucratic ideology.
- 4) The people's discontentment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powers of the vested rights.

The above problems have been indicated. Based on the study of the practical North Korea

The followings are pointed out ;

- 1) Generalize the course of Socialism system change.
- 2) Analyze the cause of discord and obedience in case of North Korea change.
- 3) Predict the possible future change in the North.

The North Korea shall inevitably open the door in the view of economic situations and the political circumstance shall be the cause of discord in the change. Therefore they will pursue to be settled economically by inviting the marketing principles while on the other hand strengthen the political ideology through the ideological education and mobilization after solidifying the system of a successor.

They have to progress the economic growth by opening the door and at the same time The disclosed informations and awakened sense of the inhabitant in the North shall be the potential causes of the system change.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time of the change of the system of the North Korea ruling powers also analyze the system change, indicate the problems for coming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To indicate these problems of the North Korea system various results of the study on the change shall be accumulated and running after such efforts will be subject of the scholars who study it.